

다음, 다뇨, 다식, 체중 감소 등 고혈당 증상은 대개 혈당이 300~400 mg/dL 이상 매우 높을 때 나타납니다. 당뇨병의 치료 목표는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혈당을 당뇨병이 없는 사람처럼 유지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. 따라서 증상과 상관없이 혈당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를 6.5% 미만(대한당뇨병학회 기준) 혹은 7% 미만(미국당뇨병학회 기준)으로 유지하는 것이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.

Q. 밤에 잘 때 입이 말라서 물을 먹게 되는 것이 고혈당 증상인가요?

A.

대개 고혈당 증상은 밤에만 나타나지 않고, 하루 중 계속 소변을 많이 보고 입마름과 갈증으로 물을 많이 마시게 됩니다. 밤에 잘 때 입이 마르는 증상은 입으로 호흡하는 경우, 노화, 약물 부작용, 쇼그렌 증후군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. 입마름이 지속되거나 다른 고혈당 증상이 동반된다면 병원을 찾아 당뇨병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
참고문헌

- 1.대한당뇨병학회 (2018). 당뇨병학 (제 5판).
- 2.대한당뇨병학회 (2021). 2021 당뇨병 진료지침 (제7판).
- 3.대한당뇨병학회 (2021). 당뇨병학 용어집 (제4판).

- 1.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(2022). Standards of Medical Care in Diabetes. Diabetes Care. January 2022 Volume 45, Supplement 1.



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"**출처표시+상업적이용금지+변경금지**"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☰ 목록

[개인정보처리방침](#) [개인정보이용안내](#) [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](#)

[28159]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
문의사항: 02-2030-6602 (평일 9:00~17:00, 12:00~13:00 제외) / 관리자 이메일 : nhis@korea.kr
COPYRIGHT © 2024 질병관리청. ALL RIGHT RESERVED

해외기관

^

유관기관

^

정부기관

^

※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.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

